

# 장성군,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최

### 올해 청년후계농 31명...농업 기술 등 전수

### 일주일간 현장 상담하며 문제 해결 지원키로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후계농, 관계공무원, 선배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후계농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 3년차 미만의 농업인 가운데 선발한다.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올해 장성군 청년후계농 규모는 31명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7명을 뽑았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업 마이스터, 선도농가 등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품목별 농업 기술 전수와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등 다양한 경험을 전수했다.

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일주일간 청년농업인 농가에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후계농이 일류 농업도시 장성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담양군, 주민동아리 성과 공유회 '죽림도락' 개최

담양군과 담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죽림도락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 4일 열린 행사는 담양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37개 동아리, 35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동아리들은 취미생활을 지역 내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밀도를 높였으며, 이번 성과공유회의 전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작품을 준비하는 등 죽림도락 프로그램 전반을 주민들이 주도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술, 공예, 생활용품 동아리의 전시, 대공연장에서는 국악,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으며, 육아용품 시장도 함께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동아리 참여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무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과 함께 마을의 축제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1차 심사 선정

곡성군이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1차 심사를 통과한 꿈놀자 놀이터 조성사업이 '그림 우린 어디서 놀아요? [특명] 놀이터를 구(求)하라'라는 제목으로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곡성군은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민정책디자인에 응모했다. 그 결과 응모된 총 110건 중 37건에 선정되어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차 심사에서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의 대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37건 중 23건이 선정되고 최종 심사에서 10건으로 좁혀진다.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 누구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은 곡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 개선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곡성중앙초등학교 내에 제1호 꿈놀자놀이터가 완공됐고, 2024년까지 육과권과 석곡권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곡성군은 육과권과 석곡권에서 추진될 놀이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곡성=양혜영기자

# 2024년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2024년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숙박시설(원룸형 30, 단독주택형 5), 교육장, 영농실습 포장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 공간과 영농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간 약 120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농기계 사용 ▲감자, 고구마 재배 ▲옥수수, 고추 재배 등이다.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

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돼 있는 귀농귀촌 희망인이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역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또는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또는 우편(57613)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팀(061-780-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 나주시, 택시기본요금 3300→4300원으로...10일부터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르고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를 적용한다. 심야할증과 시



계 외 할증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주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 화순천 음악 분수대, 18일 공연 끝으로 내년 기약

### 내년 재운영 시점 4~5월경 예상...당일 기상 조건따라취소될 수도

화순군은 지난 10월 말 개장한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가 오는 18일 공연을 끝으로 동절기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숨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 하천을 조성하고자 '23년 2월 착공식과 더불어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였다.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는 길이 60m, 폭 10m의 음악 수조, 최대 높이 50m의 캐논 슈터, 681개 노즐과 263개의 LED 수중조명, 빔 프로젝트 등 초대형 분수대로 함께 조성된 광장과 관람석, 코스모스 산책로, 화려한 경관·조명은 화순군의 새로운 지역 명소(랜드마크)이자 군민의 문화 휴식 공간이다.

음악 분수대 운영은 오는 11월 18일까지 평일 1회(19:00), 주말 2회(18:30/19:30) 공연할 계획이나, 당일 기상 조건(우천, 강풍)에 따라 분수대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 내년도 재운영 시점은 정비기간을 거쳐 4~5월경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먹거리(푸드트럭)를 추가하고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접목,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야간경관 연출과 함께 사진 촬영 명소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의 사항은 화순군 건설교통실 하천관리팀(061-379-3801) 또는 운영실(010-4077-1717)로 연락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